



## 난가 약보합세 당분간 이어갈 듯

###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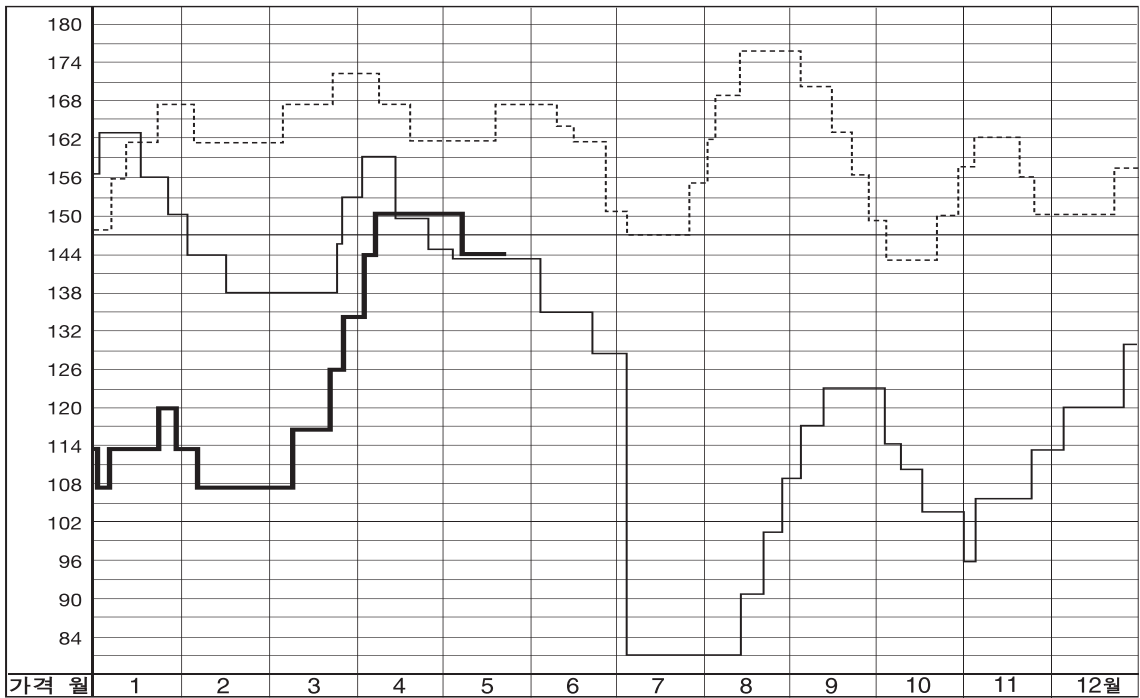
난가시세는 시기적으로 비수기에 해당되는 시점을 맞이하면서 약세권에 접어들고 있다. 산지유통 상황은 전반적으로 원활한 가운데 소비량은 크게 감축되지 않았으나 일교차의 기온 안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대형할인마트의 할인행사 종료, 난가공 비축물량 확보, 신계군의 산란가담 등의 이유로 공급대비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난가는 지난 5월 10일 전국적으로 인하 되었다. 연중 진행된 노계 도태로 큰 알의 생산량은 잔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난가 하락세는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락철과 고온다습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밥을 대신하여 제빵과 면제품, 가공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져 난가는 한두 차례 정도 소폭 인하된 후 보합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자료분석

지난 4월 산란중계 입식마리수는 3,100수로 전월대비 72.2% 증가하였으며, 4월까지의 누계입식 마리수는 186,880수로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의 산란병아리 분양 마리수는 3,691천수로 전월대비 13.7% 증가, 전년 동월대비 3.4% 감소하였다. 3월 육추사로 생산량은 22,677톤으로 전월대비 10.9% 감소, 전년 동월대비 27.3% 감소하였다. 한편 3월 산란노계 도태수는 2,116천수로 전월대비 30.9%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 19.3% 감소해 환우계군과 노계군의 산란가담 비율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1/4분기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5,875만수로 전 분기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신계군의 사육마리수 증가로 전반적인 계란생산성이 매우 좋아지며 잔알 생산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막연한 난가 인상의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한 사육계획이 요구된다.

### ◆ 전망

향후, 난가상황은 유통과 가공란에서 충분히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어 특별한 구매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 공급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노계군의 생산 감축은 난가 인하 후 산란노계 도태작업이 일시에 몰리면서 도계장의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생산감축은 터디게 진행되고 있다. 난가에 대한 불안감은 산란병아리의 입추와 중추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2/4분기 난가시세에 주로 영향을 미칠 지난 4/4분기 실용계 분양수수는 10,353천수로 전전년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불황이었던 침체기때 보다도 병아리는 더 입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월 2회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조치로 계란 매출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대로 난가 하락 시 할인행사를 통한 고객유치 관측행사 상품으로 계란이 제공되어지면 농장 재고 물량소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앞으로 생산과잉으로 인한 약세권인 시세를 반등시킬 수 있는 열쇠는 농가들이 쥐고 있음을 명심하고, 꾸준한 노계도태를 참여와 환우금지 등으로 시장안정에 최대한 동참하여야 하겠다.



※ 2012.7.6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47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1-- 2012- 2013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263	27.0	181.9	1,075	1,079
2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500	633	25.6	155.4	1,075	1,088
3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22.7	166.7	1,066	1,145
4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1,050	1,480
5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6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

7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8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9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0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11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계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